

학령전기 자녀의 가정환경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Home Environment for Preschoolers

장영은¹

Young Eun Chang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child, family, and parents' psychological factors that were related to quality of home environment among families with preschoolers in Korea. The relationships between a series of factors and home environment and the predictive effects of the factors on HOME scores were analyzed using data from 1,690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e 5th wave of the PSKC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when the target child's age was about 4 years old. The results revealed that when the child was a boy and when the child had a difficult temperament, the overall HOME scores were lower. Mothers' age, parents' education, family income, poverty and family life even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HOME scores, too. All of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both mothers and fathe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HOME scores. When both mother and father had less depressive symptoms, lower level of parenting stress and greater marital satisfaction, the HOME scores were highe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hild's gender, father's education an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were relatively strong predictors of HOME. The policy implication for parent educ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proposed.

¹ 제1저자(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e-mail : yechang@cau.ac.kr)

|| **Key words** Home Environment, Child Factors, Family Factors, Parents' Psychological Factors, Parenting

I. 서론

인간의 발달에 있어 가정환경은 출생과 동시에 접하게 되는 최초의 직접적인 환경으로서, 가정 내 관계 및 환경의 특성은 발달의 중요한 생태학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Bronfenbrenner & Morris, 1998). 가정환경은 부모-자녀 관계의 배경이자,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교환되는 환경으로서 생애 초기 발달에 필요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 연구들은 아동의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가정환경의 질과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정환경이란

교육적이고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양육행동의 특성에서부터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교재 및 도서를 구비하는 환경적인 측면에 이르는 일련의 양육환경의 질적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Bradley & Caldwell, 1995).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을 포함하는 영유아기의 발달에 가정환경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입증해왔다 (김수정, 정익중, 2015; 김정미, 박금주, 2007; 김혜경, 조성연, 2002; 오성숙, 2013; 이지연, 박금주, 2008; 최정아, 이승연, 2008; Abreu-Lima, Leal, Cadima, & Gamelas, 2013; Bradley & Caldwell, 1995; Collins, Maccoby, Steinberg, Hetherington, & Bornstein, 2000;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Murray & Yingling, 2000; NICHD ECCRN, 2002; Son & Morrison, 2010). 학령전기 발달에 걸쳐 가정 내 환경에서 언어적, 인지적 자극이 충분히 주어지고, 다양한 경험과 교육적인 자료가 아동에게 제공될 때, 아동의 언어발달과 학습적 능력이 더 우수함을 밝힌 국외연구(Son & Morrison, 2010)와 더불어, 국내 연구에서도 가정환경 자극 변인이 유아의 언어발달 (이지연, 박금주, 2008) 뿐 아니라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정서 발달(김혜경, 조성연, 2002; 한명숙, 서선숙, 2013)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학력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들이 통제된 이후에도 가정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Gottfried, Fleming, & Gottfried, 1998). 특히 학령전기는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인 만큼 가정환경이 발달에 작용하는 역할이 크며, 이후 학교 입학 후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에 이르는 장기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알려져(Morrison & Cooney, 2001), 이 시기 가정환경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이 가정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다루었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 발달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가정환경을 다룬 연구도 존재하지만,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가정환경 측정도구의 타당화 과정에서 몇몇 기본적인 인구나사회학적 변인과 가정환경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이외에 다차원적인 수준의 요인들을 선정하여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가정환경과 연관되는 자녀 및 가족 수준의 특성들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양육환경 구성에 기여하는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아동이 성장하는 가정환경의 특성과 질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1970년대 Bradley와 Caldwell (1979)의 척도 개발을 즈음하여 활발히 시작되었다. 유아 가정환경검사척도(Early Childhood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EC-HOME)는 학령전기 아동이 성장하는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에서부터, 책과 장난감을 포함한 자료, 학습적 경험과 인지적 자극의 제공, 그리고 어머니의 온정과 언어적 반응, 또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양식과 같은 근접한(proximal) 경험 등 일련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가정양육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아동발달을 촉진하는 가정환경은 크게 인지적, 정서적, 물리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Bradley, 1985; Menaghan & Paelel, 1991). 인지적 환경특성은 자녀의 연령과 발달 상태에 적합한 인지적인 경험과 자극이 제공되고, 아동의 활발한 인지적 시도를 장려하는 흥미로운 환경이 구성되는지를 의미한다. 가정환경의 정서적인 측면 역시 아동의 발달에 중

요한데,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지가 인지적 자극과 병행될 때 자녀의 호기심이 쉽게 유도되고, 환경 내 학습 자료 및 교구의 활용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생활하는 물리적인 양육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고,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이나 책이 준비되어 있으며, 하루 일과가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때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일 것이라 보았다. 한편 이지연과 광금주(2008)는 가정환경검사의 국내 타당화 연구를 통해 EC-HOME의 하위영역을 크게 행동적인 영역과 물리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행동적인 영역에는 학습적인 행동(학습자극, 언어자극)과 정서적인 행동(반응성)을 포함하고, 물리적인 영역에는 학습자극(학습도구, 도구적 다양성)과 주거환경(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였다. 요약하면, 가정환경은 부모의 양육의 다양한 행동적인 측면과 함께 유아가 성장하는 물리적 환경의 발달적합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정환경의 여러 측면의 균형과 조합을 고려한 척도는 양육환경의 어떠한 부분에 의해 아동의 발달이 예측되는지를 효과적으로 밝히는데 기여해왔다. 즉, 가족의 소득이나 특정한 양육 행동, 또는 가족 구조와 같은 개별적인 변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반적인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과 가족의 특성에 적합한 가정환경자극의 측정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가족환경 검사(HOME) 척도의 타당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김정미, 광금주, 2007; 송인섭, 안혜진, 김나현, 정미경, 2006; 이은해, 장영애, 1982; 정현심, 김정민, 김지현, 이순형, 201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환경은 아동의 발달 전반에 걸쳐 설명력이 큰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환경의 차이를 설명하는 관련변인이 체계적으로 분석될 때, 가정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이 아동이 실제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 가정환경의 차이를 설명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즉, 아동이나 가족의 특성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따뜻한 언어적 지지를 보내며,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준비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가정은 Belsky(1984)가 제시한 양육의 과정모델(process model)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부모가 가진 개인적 자원, 스트레스 및 지지, 그리고 자녀의 특성이다. 즉, 부모가 가진 사회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또는 자녀가 까다롭다고 인지할 때 둔감하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Belsky(1984)는 부모 양육의 특성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결정하게 되므로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에 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가족 및 자녀의 특성은 양육이 일어나는 가정환경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Baharudin과 Luster(1998)는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NLSY)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어머니 특성, 환경특성, 그리고 자녀 특성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 교육수준과 지능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더 나은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가족소득과 더 적은 자녀 수,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자녀 발달에 적합한 가정환경을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연령이 높고, 자녀가 여아일 때 가정환경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 수준 및 가족 수준의 다양한 요인이 가정환경과 관련됨을 밝혔다. 하지만 국내연구에서는 가정환경과 관련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하나의 연구에서 살펴 본 사례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탐색적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크게 자녀특성, 가족특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특성으로는 자녀의 성별 및 기질이 포함될 수 있다. 부모는 자녀 성별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수준과 특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Bronfenbrenner, Alvarez, & Henderson, 1984). Davis-Kean (2005)은 여아의 부모가 남아의 부모에 비해 가정 내에 더 많은 인지적 자극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즉 여아의 경우 부모가 책을 더 빈번히 읽어주거나, 연령에 적합한 언어적, 인지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을 돕는 양육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Baharudin과 Luster(1998) 역시 가정환경 질적 수준이 여아 가정의 경우 유의하게 높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자녀 성별과 가정환경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Bradley, Caldwell, Rock, Hamrick & Harris, 1988; Menaghan & Parcel, 1991). 이처럼 자녀 성별과 가정환경 구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일관적인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기질 역시 양육환경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부모 행동은 자녀와 독립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 자녀가 까다롭고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보이는 경우, 자녀 요구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육적인 노력도 적게 기울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Bradley & Corwyn, 2008; Maccoby, Snow, & Jacklin, 1984). 하지만 연구에 따라서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 양육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혔다. 즉, 자녀가 까다로울 때 부모는 인지적인 도움과 자극을 더 많이 제공하는 동시에 행동에 대한 제재와 부정적인 양육태도 역시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기질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어느 한 방향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Putnam, Sanson, & Rothbart, 2002). 가정환경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에 비하여,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 가정의 양육환경 내 자극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 지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 수준의 특성들, 특히 소득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 사이에는 비교적 일관되게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미, 박금주, 2007; 이지연, 박금주, 2008; Bradley, Corwyn, McAdoo, & Coll, 2001; Davis-Kean, 2005, Votruba, 2003). 국내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척도의 하위 요인 중 학습적 도구 및 물리적 환경, 그리고 언어적 자극 영역이 부모의 학력 및 직업 지위, 그리고 가족 소득과 일관되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김정미, 박금주, 2007). 빈곤 역시 가정환경을 예측하는 중요한 가족특성으로서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지속적인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온정과 민감성을 감소시키고, 자녀를 위한 학습적 기회나 다양한 경험의 제공 등 바람직한 가정환경 조성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다 (박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Bradley et al., 2001; Brooks-Gunn & Duncan, 1997; Guo & Harris, 2000;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또 다른 가족 수준의 특성으로 가족원의 수와 같은 가족구조 역시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조성연, 2002).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가정환경의 질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녀 또는 성인 가족의 증가가 자녀 양육의 민감성 및 온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Bradley & Caldwell, 1984; Evans, Maxwell, & Hart, 1999; Menaghan & Parcel, 1991). 부모의 연령도 가정환경과 관계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Baharudin과 Luster(1998)는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환경이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Son과 Morrison(2010)은 어머니가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 때 가정환경이 점차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Menaghan과 Parcel(1991)도 어머니의 임금과 같은 직업요인과 가정환경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였다. 반면 학령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가정환경 점수는 비취업모 가정에 비해 높았으나,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분석에 투입된 이후에는 취업여부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Lleras, 2008). 그 외에 가족의 특성으로 가족이 경험한 생활사건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도 존재하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Bradley, Caldwell, Rock, Hamrick, & Harris, 1988). 그럼에도 불구하고, Bradley와 동료들은(1988)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즉각적이고 과정적인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은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뿐 아니라, 가족이 경험하는 생활사건과 같은 상황적인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연령, 교육수준, 가족 소득, 가족구성원의 수, 어머니의 취업여부, 그리고 생활사건 등의 변인을 가족특성으로 포함시켜 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가정환경구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 및 가족의 특성 외에도 부모의 심리적 특성도 가정환경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트레스 또는 우울을 비롯한 심리적인 상태는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여러 연구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에 따라 온정적인 양육행동 및 언어적 상호작용 등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왔다. 이는 Belsky(1984)가 제시한 양육의 과정 모델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부모의 정서적 자원이 풍부할 때 자녀에게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심리적 상태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가정 내 양육환경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국내에서는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미흡하다. Baharudin과 Luster(1998)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가정환경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Son과 Morrison(201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 정도가 가정환경의 질적 저하를 예측하였다. 즉, 부모의 심리적 상태가 건강할 때 다양한 장난감 및 책을 구비하며, 자녀의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언어적 자극을 주며, 여러 경험을 통해 연령에 적합한 발달을 도모하는 노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심리적 상태와 가정환경의 수준 간의 관계에서 인종 집단(Baharudin & Luster, 1998) 또는 국가간 차이(Gunning et al., 2004)도 발견되어,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기존 해외에서 살펴보았던 부모의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을 국내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어머니만의 심리적 변인이 아닌,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까지 포함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차별점을 찾을 수 있다.

가정환경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상적인 체계인 동시에, 문화와 시대라는 보다 큰 체계의 속해있다. 따라서 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관련요인과의 관계

에서도 관계의 강도나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 Bradley, Corwyn 그리고 Whiteside-Mansell (1996)은 가정환경검사(HOME)의 점수 분포나 가족특성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 등을 다룬 여러 나라의 연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족 구조 및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된 결과가 도출된다고 보았다. 반면 가정환경의 내용면에서, 인지적 자극보다는 정서적 지지 부분에서 문화적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특성이나 부모의 심리적 변인은 포함되지 않아, 문화에 따라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 간 관계에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가정환경구성의 성격이 학령전기 유아의 언어, 인지 및 사회정서발달을 공고하게 예측하며(장영은, 성미영, 2015; Foster, Lambert, Abbott-Shim, McCarty, & Franze, 2005), 만 3~5세 경의 가정환경을 유아발달을 예측하는 중요변인이라고 보고하였기에(Bradley, Caldwell, & Rock, 1988; Leventhal, Martin, & Brooks-Gunn, 2004), 그 시기의 중간지점인 만 4세 유아를 둔 가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Bradley, Corwyn, McAdoo 그리고 Coll(2001)에 따르면, 영아기나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비해 만 3-5세의 가정환경에 책, 장난감과 같은 물리적 교구 및 환경이 더 풍부하며, 인지적 자극이나 언어적 반응에 있어서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 활발한 상호작용이 오고가는 것으로 밝혀져, 만 4세 시기의 가정환경이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적합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의 초점으로 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와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상황에서 만 4세 자녀를 위한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그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환경을 유아의 발달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자녀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학습적 환경구성으로 정의하고,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녀와 가족의 특성 및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녀와 가족의 특성 및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가정환경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제주도 제외 전국 수준의 자료로,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2,078가구를 1차년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유아만 4세에 해당하는 5차년도에는 총 1,703가구가 참여하였는데, 이는 한국아동패널의 원년에 해당하는 1차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81.9%가 조사를 완료한 것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조사에서 가정환경조사에 응한 1,690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남자는 863명

(51.1%), 여아는 827명(48.9%)였으며, 자녀의 월령은 최소 49개월에서 최대 55개월로 만 4세에 해당되었고, 평균월령은 약 51.86 ($SD = 1.24$)개월이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가족의 특성과 분석변인의 기술통계수치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2. 측정도구

1) 가정환경

가정환경은 Early Childhood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EC-HOME: Caldwell & Bradley, 1984, 2003)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EC-HOME은 3-6세 자녀를 둔 가정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의 질을 묻는 총 55문항으로 구성된, 질문과 관찰이 혼합된 측정도구로서 총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1) 또는 아니오(0)로 응답하는 이분척도로서 각 문항에서 묻는 사항의 해당여부를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과 관련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문항의 내적일관성이 낮은 3개의 영역을 제외하고, 총 5개의 영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5개의 영역은 선행연구(이지연, 곽금주, 2008)에 근거하여 행동적인 영역(언어자극, 학습자극, 반응성)과 물리적 영역(학습자료, 물리적 환경)으로 나누어 결과를 살펴보았다.

행동적 영역에 포함되는 언어자극(Language stimulation)은 부모가 대화, 모델링, 직접적인 지도 등을 통해 자녀의 언어발달을 독려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의 향상을 위하여 이 중 5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언어자극 하위영역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60$ 이었다. 반응성(Responsivity)은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를 묻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 이었다. 학습자극(Academic stimulation)은 모든 문항이 면접을 통해 응답되며 부모가 유아기의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대하여 격려하고, 학습에 관여하는지에 대해 묻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Cronbach's $\alpha = .70$). 가정환경의 물리적 영역 중 학습자료(Learning materials)는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난감, 책, 게임에 대한 아동의 접근 가능성을 측정하며, Cronbach's α 는 .6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은 물리적 환경이 안전하고 흥미로운지,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환경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 점수는 언어자극, 반응성, 학습자극의 총점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가정환경의 물리적 영역 점수는 학습자료와 물리적 환경 문항의 총점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가정환경 총점은 앞서 언급한 EC-HOME 5개 영역의 총 35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신뢰도는 높은 편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 으로 나타났다.

2) 자녀 특성

가정환경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특성으로는 자녀 성별(남아=1, 여아=0)과 출생순위(첫째=1, 둘째 이상=0), 그리고 기질을 포함하였다. 자녀 성별과 출생순위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고, 성별의 경우 남아=1, 여아=0의 값을 부여하였다. 출생순위는 첫째아 =1, 나머지=0의 값

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자녀의 기질은 Th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 (EAS: Buss & Plomin, 1984)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 기질 설문 중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을 나타내는 정서성 영역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자녀기질의 정서성은 자녀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아이는 잘 운다’,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등의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75$ 이었다.

3) 가족 특성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의 관련변인으로 선정한 가족특성 변인은 부모 연령과 학력, 가구소득, 빈곤여부, 가족구성원의 수, 어머니 취업여부 그리고 가족생활사건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 부모 연령과 교육수준은 5차년도 자료 수집 시 설문에 포함되었다. 자료수집 당시 설문에서는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 중에서 선택하였으며, 이후 분석을 위하여 집단변인을 무학=0년, 초졸=6년, 중졸=9년, 고졸=12년 등의 방식으로 학력연한이라는 연속변수로 변환하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근로 및 사업소득을 질문하였다. 빈곤여부는 대상가족이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여,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빈곤가족으로 분류하였다. 어머니 취업여부는 자료 측정 당시 어머니가 취업 또는 학업 중인지를 질문하였다. 가족생활사건은 McCubbin, Patterson과 Wilson(1982)의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이재림(2001)이 번안한 척도를 기본으로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생활사건(17문항)과 비규범적 생활사건(12문항)의 목록을 주고, 최근 1년간 해당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질문하며,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생활사건의 수를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4) 부모의 심리적 특성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결혼만족도를 포함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은 Kessler 등 (2002)의 우울척도인 K6 (Kessler, et al., 2002) 근거하여 구성된 총 6개 문항의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척도로 구성된 총 6개 문항의 이 도구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6-30점이며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우울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아버지 우울척도는 Cronbach’s $\alpha = .91$ 로 높게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디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내용인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의 5점 리커트, 총 1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Crnic과 Greenberg (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 등 세 해외척도를 기초로 우리나라 양육현황에 맞게 개발한 도구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 .88, .86$ 이었다. 결혼만족도는 Chung(2004)의 결혼만족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생활 전반과 배우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1,690)

변인	범위	n	%	변인	범위	n	%
자녀 월령 (개월)	49~50	282	14.1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9	0.5
	51~52	894	52.9		고졸	441	26.1
	53~55	558	33.0		대졸	1,047	61.9
자녀 성별	남	863	51.1	가구소득 (만원/월)	대학원 이상	175	10.4
	여	827	48.9		200만원 이하	157	9.3
출생순위	첫째	775	45.9	빈곤수준	201~300만원	410	24.3
	둘째	720	42.6		301~400만원	455	26.9
	셋째 이상	195	11.5		401만원 이상	668	39.5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174	10.2	가구원 수	기초수급	10	0.6
	31세~40세	1,400	82.8		차상위	70	4.1
	41세 이상	107	6.3		해당없음	1,610	95.3
아버지 연령	30세 이하	64	3.8	어머니 취업	3인 이하	430	25.4
	31세~40세	1,295	76.6		4	878	52.0
	41세 이상	313	18.5		5	267	15.8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9	0.6	미취업	6인 이상	116	6.9
	고졸	489	28.9		취업	709	42.0
	대졸	1,094	64.7		학업	8	0.5
	대학원 이상	88	5.2		미취업	953	56.4

자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신뢰도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Cronbach's $\alpha = .92$ 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3. 분석방법

가정환경과 자녀특성, 가족특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영역의 변인들이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 물리적 영역, 그리고 충점을 예측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자녀, 가족의 특성 및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 간의 상관관계

먼저 가정환경검사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의 점수와 총점의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가정환경 하위영역 점수 및 총점의 평균값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2> 가정환경검사(HOME) 점수의 기술통계량 (N=1,690)

HOME	최소값	최대값	M	SD
언어자극	0	5	4.84	.54
학습자극	0	5	4.73	.74
반응성	0	7	6.35	1.16
학습자료	0	11	9.06	1.08
물리적 환경	0	7	6.58	1.10
HOME 행동적 영역	0	17	15.92	1.85
HOME 물리적 영역	1	18	15.64	1.71
HOME 총점	3	35	31.56	2.96

다음으로 자녀 특성, 가족 특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각각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자녀의 성별과 가정환경의 총 5개 중 4개 요인 및 총점 간에 약하지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녀가 남아일 때, 여아인 경우에 비하여 언어자극($r = -.09, p < .05$), 반응성 ($r = -.07, p < .01$), 학습자극($r = -.08, p < .01$), 그리고 학습자료($r = -.06, p < .05$), 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고, 총점($r = -.09, p < .01$) 역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가 첫째일 때 학습적 자극의 수준은 높고($r = .07, p < .01$), 가정환경 내 학습과 관련되어 비치된 자료는 적은 경향이 있었으나($r = -.05, p < .05$), 그 외의 영역과 총점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자녀의 출생순위와 가정환경 간의 관계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일수록 가정환경 내 학습자극($r = -.05, p < .05$) 및 학습자료($r = -.05, p < .05$), 그리고 총점($r = -.07, p < .01$)이 낮게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을 부정적으로 파악할수록 가정환경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자녀특성과 가정환경 간의 상관관계수는 높지 않았으나, 물리적 영역에 비해 행동적 영역에서의 상관관계가 더 빈번히 유의하고, 그 크기도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의 특성 변인 중 아버지 연령과 어머니 취업여부, 그리고 가족원 수를 제외한 모든 변인은 가정환경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선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반응성($r = .06, p < .05$), 학습자료($r = .08, p < .01$) 및 가정환경 총점($r = .07, p < .01$)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아버지 연령은 학습자극과 부적의 상관관계($r = -.07, p < .05$), 학습자료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06, p < .01$)가 있었으나 총점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 특성 중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가정환경 총점과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을 일관적으로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학습자극을 제외한 4개 하위영역에서, 아버지의 학력은 5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총점에 있어서도 어머니($r = .17, p < .001$)와 아버지($r = .21, p < .001$)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 가정환경의 질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 때, 학습자료($r = .12, p < .001$)의 비치 및 언어적 자극($r = .06, p < .05$), 그리고 총점($r = .08, p < .01$)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은 특히 가정환경의 물리적 영역을 나타내는 변인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로 구분된 경우, 양육의 반응성($r = -.11, p < .001$)과 물리적 환경($r = -.11, p < .001$), 그리고 가정환경검사 총점($r = -.09, p < .001$)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3) 자녀 및 가족 특성,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검사(HOME) 점수 간의상관관계 (N=1,690)

구분	행동적 영역			물리적 영역		총점
	언어자극	학습자극	반응성	학습자료	물리적 환경	
자녀 특성						
성별=남아	-.09*	-.08**	-.07**	-.06*	-.02	-.09**
출생순위=첫째	.02	.07**	.00	-.05*	.01	.01
기질-정서성	-.04	-.05*	-.05*	-.05*	-.02	-.07**
가족 특성						
모 연령	.01	-.01	.06*	.08**	.02	.07**
부 연령	-.02	-.07**	.02	.06*	.00	.03
모 학력	.09***	.03	.09***	.18***	.13***	.17***
부 학력	.09***	.06*	.13***	.18***	.16***	.21***
가구소득	.06*	.02	.03	.12***	.03	.08**
기초수급/차상위	-.04	.02	-.11***	.00	-.11***	-.09***
가구원 수	-.03	-.04	-.03	.00	-.05	-.04
모 취업/학업	.03	-.03	.04	.02	-.03	.01
가족생활사건	-.04	-.03	-.08**	-.08**	-.09***	-.11***
부모 심리적 특성						
모 우울	-.08**	-.01	-.08**	-.06**	-.05*	-.09***
모 양육스트레스	-.09***	-.04	-.13***	-.06**	-.04	-.12***
모 결혼만족도	.09***	.03	.09***	.11***	.08**	.13***
부 우울	-.04	-.03	-.06*	-.06*	-.05	-.08*
부 양육스트레스	-.04	.00	-.11***	-.09**	-.05*	-.10***
부 결혼만족도	.02	.02	.06*	.06*	.06*	.07***

주: 성별 남아=1, 여아=0. 출생순위 첫째=1, 둘째 이상=0. 기초수급/차상위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1,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아닌 경우=0.

* $p < .05$, ** $p < .01$, *** $p < .001$.

반면 가구원 수와 가정환경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취업여부 역시 전 영역과 총점에 걸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이 지난 일 년 간 더 많은 생활사건을 경험한 경우, 가정환경의 질은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었다. 즉, 가정환경검사의 3개 하위영역인 반응성($r = -.08, p < .01$), 학습자료($r = -.08, p < .01$), 그리고 물리적 환경($r = -.09, p < .001$)과 생활사건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었고, 총점에서도 생활사건의 수가 많을 때, 가정환경검사의 총점이 낮았다($r = -.11, p < .001$).

부모의 심리적 특성,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가정환경 하위영역 및 총점에서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가 우울($r = -.09, p < .001$)이나 양육스트레스($r = -.12, p < .001$)를 덜 느낄수록, 그리고 배우자 및 결혼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r = .13, p < .001$) 가정환경검사로 측정된 가정환경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세 변인 모두 학습자료, 언어자극, 반응성, 다양성 및 수용성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건강할 때 자녀를 위해 인지적 자극을 더 많이 제공하고, 정서적으로도 반응적인 양육을 할 수 있음

을 밝혔다.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역시, 비록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상관관계였으나, 가정환경 총점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우울($r = -.08, p < .05$) 및 양육스트레스($r = -.10, p < .01$)가 적고,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r = .07, p < .01$), 학령전기 자녀가 양육되는 가정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기여하는 가정환경의 특성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과도 관계됨을 시사하며,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과 관련되는 변인으로는 부모의 학력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녀, 가족 특성 및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가정환경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다음으로는 자녀 및 가족 특성과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가정환경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은 각각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언어자극, 학습자극, 반응성)과 물리적 영역(학습자료, 물리적 환경)점수의 합과, 5개 영역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시하였고, 자녀 특성, 가족 특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 변인을 중다회귀분석모델에 투입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의 VIF 지수는 최고 1.48로서 변인의 투입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가정환경검사의 행동적 영역 점수 총합을 예측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동적 영역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자녀 성별($\beta = -.09, p < .001$), 어머니 연령($\beta = .08, p < .05$), 아버지 연령($\beta = -.07, p < .05$), 빈곤여부($\beta = -.06, p < .05$),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beta = -.10, p < .01$)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가 여아일 때,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 내 언어 및 학습적 자극과 반응성을 반영하는 행동적 영역의 점수가 높았고, 가족이 빈곤할 때,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가족일수록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이 열악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을 예측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 성별의 영향력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환경검사의 물리적 영역 점수 총합을 예측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관련 변인으로는 자녀 성별($\beta = -.05, p < .05$), 어머니의 학력($\beta = .08, p < .05$), 아버지의 학력($\beta = .14, p < .001$), 생활사건 총합($\beta = -.06, p < .05$), 그리고 어머니의 결혼만족도($\beta = .07, p < .01$)가 발견되었다. 즉, 자녀가 여아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경험하는 생활사건의 빈도가 낮고,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 내 학습자료 및 물리적 환경과 같은 자녀 양육의 물리적 영역의 질적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 학력이 가정환경의 물리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환경검사 총점을 예측하는 자녀와 가족 특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한 중다회귀모델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자녀의 특성 중 자녀가 여아일 때($\beta = -.10, p < .001$) 가정환경 총점이 높게 예측되었다. 하지만 가정환경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자녀의 기질의 정서성은 회귀분석에서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의 특성 변인을 살

〈표 4〉 가정환경검사(HOME)의 행동적 영역, 물리적 영역 및 총점을 예측하는 중다회귀모델 (N=1,690)

구분	행동적 영역	물리적 영역	총점
		β	
자녀 특성			
성별=남아	-.09***	-.05*	-.10***
출생순위=첫째	.01	-.03	-.01
기질-정서성	-.02	.00	-.03
가족 특성			
모 연령	.08*	.05	.06
부 연령	-.07*	.00	-.02†
모 학력	.00	.08*	.06
부 학력	.06†	.14***	.10***
가구소득	.01	.04†	.02
기초수급/차상위	-.06*	-.03	-.06*
가구원 수	-.02	-.02	-.04†
모 취업/학업	.02	-.02	.00
가족생활사건	-.04	-.06*	-.05*
부모 심리적 특성			
모 우울	.05	.01	.04
모 양육스트레스	-.10**	-.01	-.08*
모 결혼만족도	.05†	.07**	.10***
부 우울	-.04	-.03	-.03
부 양육스트레스	-.01	.00	-.02
부 결혼만족도	.01	.02	.02
F	4.21***	16.24***	8.55***
R ² (adj R ²)	.05(.04)	.08(.07)	.09(.08)

†p<.10, *p<.05, **p<.01, ***p<.001.

펴보면, 아버지의 학력, 빈곤 여부, 그리고 가족의 생활사건이 가정환경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아버지의 학력(β=.10, p<.001)이 높을수록 가정환경의 수준은 더 우수했으며, 가족이 빈곤하거나(β=-.06, p<.05), 가족이 더 많은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β=-.05, p<.05) 가정환경의 질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어머니 연령, 가구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는 회귀모델에서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 수준이 어머니 연령 및 가족의 소득수준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어서 부모의 심리적 특성 변인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β=-.08, p<.05)와 결혼만족도(β=.10, p<.001)가 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가정환경의 질적인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자녀가 여아일 때,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고, 빈곤가족에 속하지 않으며, 가족에게 일어난 규범적, 비규범적 생활사건의 빈도가 낮을 때 가정환경 내 인지적 자극과 학습적인 환경, 그리고 자녀 발달에 적합한 양육행동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

고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고,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할 때, 자녀에게 더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최종모델을 근거로 가정환경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자녀 성별($\beta = -.10, p < .001$), 아버지의 학력($\beta = .10, p < .001$)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beta = .10, p < .001$)의 세 변인이 다른 변인에 비해 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전반적인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이용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가족의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과 관계될 것으로 가정되는 자녀 및 가족 특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편적으로 보고되었던 변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정환경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특성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녀가 남아이고, 자녀 기질이 까다로울 때 가정환경의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자녀 성별과 양육환경 내 인지적 자극과 양육특성 간의 관계는 이전 연구에서 자녀가 여아일 때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주고,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경험과 놀잇감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Davis-Kean, 2005; Baharudin & Luster, 1998)와 일치한다. 비록 약한 상관관계였으나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밝혀진 자녀 성별과의 관련성은 추후연구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남아인 경우에는 언어적, 인지적 자극에 비해 신체적인 활동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런 경우 가정 내 양육환경을 측정하는 데 있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운 때 가정환경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출할수록 부모 양육의 민감성이 떨어지고, 인지적 자극을 주는 기회 제공이 제한된다는 이전 연구결과(Bradley & Corwyn, 2008)를 지지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밝힌 선행연구를(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Putnam, Sanson, & Rothbart, 2002) 확장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특성은 가정환경의 물리적 영역보다 행동적 영역, 즉 부모의 행동의 결과가 반영되는 언어자극, 학습자극, 그리고 반응성 등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도 밝혀졌다.

둘째, 가정환경과 관련된 가족 특성 변인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가족 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과 가정환경 간의 정적인 상관이 발견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환경 내에 보다 바람직한 양육조건이 형성된다는 Baharudin과 Luster(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더 어린 나이에 자녀를 출산할수록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 등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양육효능감이나 부모됨의 준비가 부족하여,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Baharudin & Luster, 1998)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가구소득 그리고 빈곤과 가정환경 간에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빈곤여부와 가정환경 간의 밀접한 관계를 밝혀온 선행연구결과(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이지연, 곽금주, 2008; Bradley, Corwyn, McAdoo, & Coll, 2001; Brooks-Gunn & Duncan, 1997; Davis-Kean, 2005;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를 지지하는 동시에, 가정환경과 가족 특성 간의 관계에 있어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보다는, 유사한 유형의 관련성이 존재함(Bradley et al., 1996)을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부모 학력과 소득은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에 비해 물리적 환경 하위요인인 학습자료 및 물리적 환경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국외 연구(Baharudin & Luster, 1998; Evans, Maxwell, & Hart, 1999)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과 관계를 나타낸 가족구성원 수는 본 연구에서 총점 및 각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해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증가가 가족 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가족구조의 변화 (e.g., 재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형제 또는 조부모의 동거 등)를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전반적 양육환경의 질을 낮추는 것과는 달리, 한국 가족에서 가족구성원은 양육조력자인 조부모와의 동거 등을 의미할 수 있어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어머니가 취업했을 때 가정환경 내 교육적 자극을 포함한 전체적 수준이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Lleras, 2008; Son & Morrison, 2010)와는 달리 어머니의 취업여부 역시 가정환경구성의 하위요인 및 총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취업 여부가 가족 소득, 빈곤 또는 학력수준과 가지는 결과와 종합하여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어머니 취업 여부로 인해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가족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의 빈도는 가족특성의 상황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가정환경의 몇몇 하위요인 및 총점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가족생활사건과 가정환경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밝힌 국외의 연구결과(Bradley et al., 1988)와는 상반된다. 하지만 가족생활사건이 부모의 스트레스나 우울을 유발할 가능성(김진이, 2009)을 감안하면, 부모의 심리적 상태를 통해 가정의 부정적인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며, 스트레스 요인과 유아 자녀를 위한 가정환경 구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분석결과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 간에는 비교적 일관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결혼만족도는 가정환경검사 하위영역 및 총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상관관계의 크기도 자녀 및 가족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즉 부모가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할 때, 부모의 정서적 자원이 풍부하게 되고, 보다 여유 있게 자녀에게 인지적 자극을 주고,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책이나 장난감을 구비하며, 민감한 양육태도로 자녀를 대하는 등, 자녀 발달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낮은 우울 성향이 가정환경의 향상을 예측한다는 기존 국외연구 결과와 일치하며(Son & Morrison, 2010), Belsky(1984)의 양육의 과정모델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의 의미를 재조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Belsky(1984)는 결혼관계의 질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결혼관계에 만족할수록 어머니가 자녀발달을 지지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

구결과는 이전의 가정환경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다루지 못했던 부모의 심리·정서적 안녕에 대한 변인과 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에서는 반응성이, 물리적 환경에서는 학습자료가 본 연구에서 선택한 관련요인과 빈번히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가정환경의 구성요인 중 자녀의 발달적 요구에 적합한 책과 놀이감을 구비하는 정도 및 자녀와 따뜻하고 민감한 상호작용을 가지는 정도가 자녀, 가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측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환경을 예측하는 세 영역의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반면, 물리적 영역은 아버지의 학력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응성을 포함하는 양육의 행동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의 중요성(Belsky, 1984)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가정환경의 물리적 측면을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환경의 행동적인 영역은 보다 상황적인 변인이, 물리적인 영역은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변인이 그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결혼만족도는 물리적 영역을 예측하여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은 가정환경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가정환경 총점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녀 성별, 아버지 학력과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가정환경을 가장 잘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국외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 간의 밀접한 관계(Bradley et al., 2001; Brooks-Gunn & Duncan, 1997; Davis-Kean, 2005; Guo & Harris, 2000;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Votruba, 2003) 뿐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상태가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며, 그 영향력의 유형에서 문화적 차이가 발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harudin과 Luster(1998)는 결혼행복감, 배우자와 의사소통, 그리고 결혼갈등이 백인가족의 가정환경을 예측하였으나, 흑인가족에게서는 유의한 예측요인이 아님을 밝혀 문화적 차이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가족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가정환경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수준과 소득, 빈곤여부 등 사회경제적 특성은 물론 가족의 구조적 특성 및 자녀특성까지 포함한 분석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이는 양육을 예측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정서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Belsky(1984)의 과정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은 가정환경의 예측요인으로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가정환경의 예측요인인 반면,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머니에 비해 직접적이거나 근접적(proximal)인 성향이 적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발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정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가정환경을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인을 선정하였으나, 일련의 변수들이 가지는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 설명력의 부족은 가정환경 척도의 적용이나 적절한 변수의 선정의 문제, 또는 가정환경의 의미와

역할의 문화적 차이 등에 기인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즉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패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기에, 가정환경의 관찰 및 측정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개입이 불가능했다는 한계가 있다. 비록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HOME 도구의 국내 적용을 위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측정도구 하위영역의 신뢰도 및 관련 변인과의 관계성이 해외 연구결과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환경구성을 측정하는 도구의 국내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구성의 하위영역이 다양한 수준의 요인과 가지는 관계성의 특성과 관련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특정 변인의 매개적인 효과 등을 포함하는 보다 구조적인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양육환경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가정의 HOME 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는데(Bakermans-Kranenburg, van IJzendoorn, & Bradley, 2005; Bradley, 1993),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가정환경에 관련된 자녀와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가정환경의 물리적 영역과 가지는 관계성을 고려하였을 때, 저소득층 등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연령별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놀잇감 및 교구의 목록을 개발하고,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간단한 부모교육 및 대여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추후연구에서 가정환경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수의 발굴이 요구된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족 구조 이외에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보육시설 이용과의 관계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정환경의 질을 예측하는 기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과 관련되는 요인을 한 시점에 횡단자료만으로 파악하였으나, 실제로 가정환경은 자녀의 발달 시기, 그리고 가족의 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정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종단연구를 추후연구로 제안한다.

참고문헌

- 박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만 3 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83-98.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학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수정, 정익중 (2015). 가정환경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효능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1), 1-28.

- 김정미, 박금주 (2007). 3-6세 유아를 위한 가정환경자극 척도(EC-HOME)의 타당화연구. **아동학 회지**, 28(1), 115-128.
- 김진이 (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만성적 스트레스 경험이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 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 25-55.
- 김혜경, 조성연 (2002). 연구논문: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환경과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한국가 족복지학**, 7(2), 3-16.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 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송인섭, 안혜진, 김나현, 정미경 (2006). 가정환경 구조모형의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0(1), 1-19.
- 오성숙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 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2), 522-531.
- 이은혜, 장영애 (1982).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의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2, 49-63.
- 이재립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박금주 (2008). 사회, 정서발달: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 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장영은, 성미영(2015) 유아의 가정환경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언어발달의 역할. **한국보육지 원학회지**, 11(6), 1-18.
- 정현심, 김정민, 김지현, 이순형 (2010). 아동용 가정환경 척도 개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 회지**, 21(3), 299-310.
- 최정아, 이승연 (2008).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환경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교육과학 연구** 39(1), 19-43.
- 한명숙, 서선숙 (2013).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간의 구조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2(1), 27-47.
- Abreu-Lima, I., Leal, T., Cadima, J., & Gamelas, A. M. (2013). Predicting child outcomes from preschool quality in Portugal.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8(2), 399-420.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3rd ed.)*.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harudin, R., & Luster, T. (1998).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the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achie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9(4), 375-403.
- Bakermans-Kranenburg, M. J., van IJzendoorn, M. H., & Bradley, R. H. (2005). Those who have, receive: The Matthew effect i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in the home environmen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5(1), 1-26.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radley, R. H. (1985). The HOME inventory: Rationale and research. In J. Lachenmeyer & M. Gibbs (Eds.),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Book supplement to the Journal of*

-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pp. 191-210). NY: Gardner.
- Bradley, R. H. (1993). Children's home environments, health, behavior, and intervention efforts: a review using the HOME inventory as a marker measur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9(4), 437-490.
- Bradley, R. H., & Caldwell, B. M. (1979).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a revision of the preschool scal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4(3), 235-244.
- Bradley, R. H., & Caldwell, B. M. (1984).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achievement test performance in first grade: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55(3), 803-809.
- Bradley, R. H., & Caldwell, B. M. (1995). Caregiving and the regulation of child growth and development: Describing proximal aspects of caregiving systems. *Developmental Review*, 15(1), 38-85.
- Bradley, R. H., Caldwell, B., & Rock, S. (1988). Home environment and school performance: A ten year follow up and examination of three models of environmental action. *Child Development*, 59(4), 852-867.
- Bradley, R. H., Caldwell, B. M., Rock, S. L., Hamrick, H. M., & Harris, P. (1988).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Development of a home inventory for use with families having children 6 to 10 years old.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3(1), 58-71.
- Bradley, R. H., & Corwyn, R. F. (2008). Infant temperament, parent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in first grade: A test of the differential susceptibility hypothesi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2), 124-131.
- Bradley, R. H., Corwyn, R. F., McAdoo, H. P., & Coll, C. G. (2001). The home environments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t I: Variations by age, ethnicity, and poverty status. *Child Development*, 72(6), 1844-1867.
- Bradley, R. H., Corwyn, R. F., & Whiteside-Mansell, L. (1996). Life at home: same time, different places: An examination of the HOME inventory in different cultures. *Early Development and Parenting*, 5(4), 251-269.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pp. 993-1028). NY: Wiley.
- Bronfenbrenner, U., Alvarez, W. F., & Henderson Jr, C. R. (1984). Working and watching: Maternal employment status and parents' perceptions of their three-year-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4), 1362-1378.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ldwell, B. M., & Bradley, R. H. (1984).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Little Rock,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University of Arkansas for Medical Sciences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3), 1015-1022.
- Collins, W. A., Maccoby, E. E., Steinberg, L., Hetherington, E. M., & Bornstein, M. H. (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the case for nature and nurture. *American Psychologist, 55*(2), 218-232.
- Crnicek,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Davis-Kean, P. E. (2005).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the in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294-304.
- Evans, G. W., Maxwell, L. E., & Hart, B. (1999). Parental language and verbal responsiveness to children in crowded hom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4), 1020-1023.
- Foster, M. A., Lambert, R., Abbott-Shim, M., McCarty, F., & Franze, S. (2005). A model of home learning environment and social risk factors in relation to children's emergent literacy and social outcom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1), 13-36.
- Gottfried, A. E., Fleming, J. S., & Gottfried, A. W. (1998). Role of cognitively stimulating home environment in children's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9*(5), 1448-1460.
- Gunning, M., Conroy, S., Valoriani, V., Figueiredo, B., Kammerer, M. H., Muzik, M., Elisabeth Glatigny-Dallay, E., & Murray, L. (2004). Measurement of mother-infant interac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in a European setting: preliminary results from a cross-cultural stud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4*(46), 38-44.
- Guo, G., & Harris, K. M. (2000). The mechanisms mediating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Demography, 37*(4), 431-447.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Leventhal, T., Martin, A., & Brooks-Gunn, J. (2004). The EC-HOME across five national data sets in the 3rd to 5th year of life. *Parenting, 4*(2/3), 161-188.
- Linver, M. R., Brooks-Gunn, J., & Kohen, D. E. (2002). Family processes as pathways from income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719-734.
- Lleras, C. (2008). Employment, work condi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in single-mother families.

- Journal of Family Issues*, 29(10), 1268-1297.
- Maccoby, E. E., Snow, M. E., & Jacklin, C. N. (1984). Children's disposition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at 12 and 18 months: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0(3), 459-472.
-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3), 451-464.
- McCubbin, H., Patterson, J., & Wilson, L. (1982).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pp. 69-89).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Menaghan, E. G., & Parcel, T. L. (1991). Determining children's home environments: The impact of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current occupational and family cond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417-431.
- Morrison, F. J. & Cooney, R. R. (2001). Parenting and academic achievement: Multiple paths to early literacy. In: Borkowski, JG.; Ramey, SL.; Bristol-power, M. (Eds.), *Parenting and the child's world: Influences on academic, intellectual,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 141-160). Mahwah, NJ: Lawrence Erlbaum.
- Murray, A. D., & Yingling J. L. (2000). Competence in language at 24 months: Relations with attachment security and home stimulatio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1(2), 133-140.
- NICHD ECCRN. (2002). Early child care and children' development prior to school entry: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9(1), 133-164.
- Putnam, S. P., Sanson, A. V., & Rothbart, M. K. (2002).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Bornstein M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Vol 1., pp. 255-277). Mahwah, NJ: Erlbaum.
- Son, S. H., & Morrison, F. J. (2010). The nature and impact of changes in the home learning environment on growth of language and academic skills of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1103-1118.
- Votruba, D. E. (2003). Income changes and cognitive stimulation in young children's home learning environ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2), 341-355.

논문투고: 15.12.05
수정원고접수: 16.03.15
최종게재결정: 16.03.29